

장애 관련 아동서사문학에 나타나는 윤리성과 전복의 상상력*

박성애**

국문초록

본고의 목적은 2000년대의 장애 관련 아동서사문학 텍스트를 분석하여 아동과 장애아동을 비롯한 타자에 대한 성인작가의 윤리와 전복의 상상력을 타자윤리적 관점에서 탐색하는 데에 있다.

장애아동인물들과 비장애인물들의 갈등은 장애아동인물이 자신의 욕망, 즉 욕망을 통한 자신의 물질성을 발화하는 순간 발생한다. 우선 장애아동인물과 비장애인물의 갈등이 크지 않은 텍스트에서는 장애아동인물이 비장애성인인물이 예상할 수 있는 대상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장애아동인물의 성격이 선한 것으로 평가될 때 갈등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즉, 장애아동인물의 주체적 욕망이 드러나지 않는 텍스트, 혹은 성인인물들에 의해 용인되는 것만 욕망하는 장애아동인물이 드러나는 텍스트에서 갈등은 훨씬 수월하게 봉합되고, 작가들이 추구하는 ‘선’은 아동독자들에게 분명하게 전달된다. 이 경우 ‘비장애아동은 장애아동에 대한 편견을 없앴으로써 그들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누그러뜨려야 하고 그들의 장애를 긍정적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은 ‘선’의 내용, 즉 작품의 윤리적 주제가 된다. 그리고 이는 장애아동은 선한 아이들이며 이 특성은 불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와 달리 성인인물이 가져도 좋다고 인정한 범위 너머를 욕망하는 장애아동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B5A07919332)

**서울시립대, haruki753@naver.com

인물은 갈등을 불러온다. 이러한 인물이 중심이 되는 텍스트에서 장애아동인물의 욕망은 비장애인물들의 욕망과 상충하고 장애아동인물은 비장애인물들에게 불편을 끼친다. 이 경우 갈등은 쉽게 봉합되지 않고, 장애아동인물을 비롯한 여러 인물들 사이의 소통이 갈등해결의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이러한 텍스트는 장애아동을 성인의 이념으로 완전히 파악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장애아동의 타자성과 욕망을 인정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텍스트에서 갈등은 더 자주 발생하고 그 해결과정도 단순하지 않기에 결말은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주체는 타자를 투명한 대상으로 여기지 않으며, 타자의 물질성을 인지하기에 윤리적 관계인 사귀이 발생한다. 또한 주체와 타자가 얼굴과 얼굴로 만날 때, 주체가 타자의 물질성을 마주했을 때 비로소 주체의 현재를 바꾸는 미래도 가능해진다. 이처럼 현 사회 주체-비장애성인-의 지식으로 환원되지 않는 욕망하는 타자-아동, 장애아동-의 등장은 문학의 윤리를 담지한다.

■ 주제어: 아동서사문학, 장애, 윤리성, 타자윤리, 물질성, 갈등, 전복의 상상력

목 차

- | | |
|----------------------|-----------------------|
| 1. 서론 | 3. 작가의 타자윤리적 감수성과 상상력 |
| 2. 장애아동인물의 욕망과 갈등 양상 | 4. 결론 |

1. 서론

본고의 목적은 2000년대의 주요 장애 관련 아동서사문학 텍스트를 분석하여 아동과 장애인을 비롯한 타자에 대한 아동서사문학 생산주체의 윤리와 전복의 상상력을 탐색하는 데에 있다. 문학이 타자의 진실과 관계하듯이 아동문학은 성인에 대하여 타자인 아동이 처한 세계의 진실과 관계한다. 비록 아동문학이 문학의 윤리와 교육의 경계에 위치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성인작가와 아동독자 사이의 소통을 위해 타자윤리¹⁾는 무척

중요하다.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성인작가의 언설은 대상인 아동에 대해 일방성을 가질 수는 있으나, 문학의 측면에서 성인작가는 아동이라는 타자에게 목소리를 주어, 그들이 주체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가들에게는 아동서사문학의 존재 양식 자체로, 주체와 타자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관계의 윤리인 타자윤리가 요구된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는 결핍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장애인도 동정과 보호의 대상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빈번하다.² 이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의 시선에 대상으로 포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회가 장애를 규정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장애 관련 문학 텍스트에 장애와 장애인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 주체들의 시선이 드러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³ 더불어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1 강영안, 『타인의 얼굴－레비나스의 철학』, 문학과지성사, 2005, 163면.

레비나스는 윤리학을 제1 철학으로 보면서 “나와 타자의 관계를 다루는 윤리학이 그 무엇보다 으뜸”이라고 말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타자윤리학을 논의의 중점에 두고자 하는데 타자는 주체가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주체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서 타인을 의미한다. 레비나스는, “타자는 나에 대해 완전한 초월과 외재성”이기에 주체가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무한성”이라고 보면서 주체가 지식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고 보는 대상으로서의 타자가 사실은 주체의 지식으로 환원 불가능한 존재임을 강조하는데, 본고에서는 이러한 레비나스의 관점을 받아들이고자 한다. 따라서 타자는 주체가 대상화하는 존재이지만, 실은 주체(이 글에서는 주로 성인작가, 비장애성인)가 그들의 지식 속에서 완전히 해석해낼 수 없는 독립적이며 주체적인 존재이다.

2 이승기·윤상용·서동명, 『장애인복지론』, 신정, 2016, 17~18면.

저자는 장애란 무엇인가를 규정하기 위해 “장애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 중에서 무엇이 더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인가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우리는 이것을 일반적으로 장애 개념 모델이라고 부른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장애에 대한 가장 오랜 관점은 “개별적 모델(individual model) 또는 의료적 모델(medical model)”로 불리는 관점으로 이는 장애를 “손상, 즉 신체구조 또는 신체기능의 비정상적 상태”로 이해하면서 “결국 손상이 능력제약과 사회적 불리를 초래하는 원인”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오랜 관점이 여전히 유효한 우리 사회에서 장애는 결핍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고, 장애인은 동정과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 복지학계나 특수교육학계에서는 장애에 대해 더 이상 의료적 모델로 바라보지 않을 것을 제안한다. 의료적 모델로 장애를 이해할 경우, 장애인은 비정상 상태에 놓인 인간으로 해석이 되고, 장애는 결핍이 되어 치료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는 장애 관련 아동서사문학에서도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3 위의 책, 17면.

저자는 장애를 사회 안에서 해석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모델(social model)”에 대해 설명한다. 이 관점에서 “장애의 핵심적인 자원은 손상을 가진 개인들이 사회생활에서 경험하는 불리(차

럼 아동문학 텍스트가 갖는 특수성에 의해 장애 관련 아동서사문학에는 장애에 대한 우리 사회 주체(이 글에서는 이들을 비장애성인이라고 볼 수 있다)의 장애아동을 포함한 아동이라는 타자에 대한 타자윤리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텍스트에 나타나는 비장애인물과 장애인물들의 관계와 그 속에 교차하는 아동서사문학 작가의 시선을 분석함으로써 작가들이 아동과 장애인에 대해 갖는 두 가지 타자윤리적 감수성-성인작가의 아동독자에 대한, 그리고 성인작가의 장애아동에 대한 윤리적 감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작품 속에서 장애인물이 하나의 인간으로서 물리적 욕구를 가진 ‘주체’로 그려지는가를 주요하게 살펴볼 것이다. 장애아동인물들과 비장애인물들의 갈등은 장애아동인물이 자신의 욕망을 발화하는 순간 발생한다. 따라서 갈등이란 장애아동인물이 얼마나 주체적으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더불어 이러한 관계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아동인물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작가들의 전복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작가들의 인식과 더불어 장애에 의해 발생하는 갈등을 풀어가는 작가들의 상상력을

별)”라고 본다. 즉, 장애인 일반적으로 정신적 혹은 육체적 손상을 동반한 사람이 사회 속에서 불리(disadvantage)을 경험할 때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불리는 “손상과 능력제약에 수반되는 당연한 결과가 아니라 손상을 야기하고 손상을 가진 개인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는 사회 환경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즉 “사회적 모델에서의 장애인 손상을 가진 개인의 활동과 사회참여를 제한하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 억압을 의미”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손상을 입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속한 사회에서 아무런 불리를 겪지 않는다면, 그 사회에서 그의 장애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사회에서 손상을 입은 사람이 장애인인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사회가 장애를 얼마나 장애로 느끼게 하는가에 따라 동일한 손상을 경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회에서는 손상에 의한 불편이나 불리를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반면, 다른 곳에서는 심각한 장애인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장애는 결국 사회의 여러 요소들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그 중에서도 사회적 시스템의 문제와 장애에 대한 인식의 문제는 무척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장애에 대한 인식의 문제만을 다루고자 한다. 인식에 관한 측면에서는 그 사회의 주체(일반적으로 손상을 경험하지 않는 성인들로 사회에서 권력을 형성할 수 있는 다수)의 시선과 그들의 타자윤리는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살펴보고자 한다.

장애 관련 아동서사문학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대부분 교육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다. 장애아동 교육을 위한 도구적 개념으로서 아동서사문학을 다룬 것이 그 한 갈래이며, 일반 아동에게 장애와 장애인에 대해 교육하기 위한 아동서사문학 연구가 또 한 갈래이다. 이 중에서 성인독자를 포함한 아동독자에게 장애와 장애인관을 새롭게 교육하기 위한 논의 가운데, 아동서사문학에 나타나는 ‘장애인관’에 대해 다루는 논문들은 주목을 요한다. 이 연구들은 장애아동을 다루는 문학연구와 관련되며 아동서사문학 생산주체의 시선에 주목한다.⁴ 김진주는 성인작가의 장애인관을 4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장애인의 자주적인 삶을 강조”⁵ 하는 장애인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연구자는 여기에 속하는 국내창작동화가 가장 소수임을 주장하면서 한국 동화 작가가 지닌 장애인관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또한 김성희는 아동서사문학의 인물들을 분석하여 “작가의 장애에 관한 견해”를 살펴본 결과 한국의 많은 동화작가들이 장애가 있는 등장인물에 대해 도와주어야 할 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아동서사문학에 “권위주의적인 태도”⁶를 드러내고 있다고 본다. 위의 연구들은 작가의 장애인관 혹은 장애인에 대한 견해를 분석함으로써, 대부분의 동화작가들이 비장애인이자 성인으로서 주체의 자리에 있으며, 이러한 주체의

4 박남수·권정순은 현재 한국의 장애관련 창작동화는 “긍정적 장애인관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나 아이들, 학부모 누구라도 올바른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내면화와 긍정적 장애인관의 가치관 형성의 도구로서 도움을 받는 데 충분”(박남수·권정순, 「우리나라 창작동화에 나타난 장애 관련 내용 분석」, 『초등특수교육연구』 7권1호, 초등특수교육학회, 2005, 75면.)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근의 논의에서는 장애관련 아동서사문학에 보완할 점이 많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특히 장애와 장애인을 바라보는 주체의 시선과 관련된다.

5 김진주, 「장애이해교육에 활용된 동화에 나타난 장애인관 분석」, 경인교육대학교 석사논문, 2013, 41면.

6 김성희, 「장애관련 아동문학작품의 등장인물 특성분석을 통한 작가의 장애에 관한 견해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논문, 2011, 국문초록.

시선에는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에 연구자들은 작가들이 “장애는 사회적, 상호작용적인 것”임을 이해하고 “자주적이고 능동적”⁷⁾인 장애인상을 작품에 드러내야 하며 “자기결정 능력”⁸⁾을 지닌 장애인물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연구는 장애를 바라보는 주체의 시선이 장애아동을 주체로 보는가, 아닌가를 문제 삼는 것으로, 타자에 대한 주체의 타자윤리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논의에 이어, 본고에서는 타자의 진실과 관계하는 문학의 윤리를 바탕으로 하여, 주체(성인, 작가)의 타자(아동, 장애인)에 대한 타자윤리적 관점에서 장애관련 아동서사문학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장애아동 인물이 중심 서사를 형성하는 아동서사문학 텍스트를 문학 연구의 영역에서 다루되, 작품들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윤리의 문제와 연관 지어 연구하고자 한다. 장애와 장애인을 전면에 내세운 텍스트들은 주체와 타자의 선명한 대립과 소통을 드러내고 있기에 현재 우리 사회 주체의 윤리적 감수성을 진단하는 데에 유용하다. 이는 비단 장애를 주제로 하는 주체와 타자의 문제를 넘어서, 여전히 타자(아동)를 주체(성인작가)의 인식 안에서 일방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강한 아동서사문학 텍스트의 윤리적 방향을 고찰하는 일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2000년대의 장애관련 아동서사문학 텍스트 중에서 교육 현장에서 자주 활용된 작품을 비롯하여 아이들에게 많이 읽힌 작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⁹⁾

7 김진주, 위의 논문, 26면.

8 김성희, 위의 논문, 2면.

9 김진주는 그의 논문에서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발표된 연구 중에서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관련 실험연구에 활용된 동화를 연구대상”(김진주, 앞의 논문, 16면)으로 하고 있다고 밝힌다. 본고에서 다루는 작품은 ‘장애인관’을 분석한 논문(앞에서 언급한 김진주, 김성희, 박남수·권정순의

2. 장애아동인물의 욕망과 갈등 양상

장애 관련 아동서사문학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은 비장애아동과 장애아동, 그리고 부모, 선생님, 동네 어른들 등 아이들의 보호자로서의 성인이다. 본고에서 다루는 모든 텍스트에는 아동과 장애아동, 그리고 성인들이 장애아동인물과 맺는 관계와 크고 작은 갈등이 담겨있다. 갈등은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기에 갈등의 양상을 살펴보면 주체의 타자에 대한 윤리의 성격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아동문학이 가진 두 가지 윤리의 측면도 인물 간의 갈등 양상과 그것을 통해 도출되는 윤리의 내용과 형식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¹⁰

장애를 중심으로 다루는 텍스트인 만큼 장애아동인물은 갈등의 중심에 있다. 하지만 인물간의 갈등은 무척 크기도 하고 그에 반해 아주 작기도 한데, 이는 장애아동인물들이 욕망을 표현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와 관련

논문)의 대상 텍스트 중에서 서로 중복되는 것 중심으로, 내용, 시점 등에 있어 다양한 텍스트들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방식을 적용했을 때, 현장에서 많이 읽히는 작품들을 우선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본고에서 다루는 텍스트는 아래와 같다.

고정옥,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대교출판, 2003.

고정옥, 『민우야 넌 할 수 있어!』, 아이엔북, 2005.

공지희, 『알로 알로 내 짝궁 민들레』, 비룡소, 2005.

공진하, 『벽이』, 낮은산, 2005.

이금이, 『나와 조금 다를 뿐이야』, 푸른책들, 2000.

이금이, 『내 친구 재덕이』, 푸른책들, 2002.

위의 작품들은 장애인물 중심인물로 설정하고 장애인물과 비장애인물의 대립을 선명하게 드러낸 텍스트들로 논문 등의 연구서를 비롯하여 교과서 등 여러 매체에서 자주 언급될 뿐 아니라, 재판을 거듭할 정도로 많이 읽히는 것이다. 즉, 문학과 교육의 현상이 만나는 지점에 놓인 텍스트들인 것이다. 모든 작품들이 출간된 지 10년 이상 지나고 있음에도 연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채 아동에게 읽히고, 교육 자료로 활용되고 있기에 시급한 연구를 요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 텍스트를 문학연구의 영역에서 다루되, 작품들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윤리의 문제와 연관 지어 연구하고자 한다. 앞으로 인용 시 제목과 페이지만 표기한다.

- 10 아동문학 텍스트에서 도출되는 윤리는 그 내용과 형식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우선 장애아동 인물과 비장애아동인물 사이의 윤리적 덕목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장애인에게는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한다’는 식의 윤리는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성인작가가 아동독자를 향해 갖는 윤리적 태도를 통해 드러나는 타자윤리적 성격은 윤리의 형식이라 할 수 있다.

된다. 그 우선 장애아동인물과의 갈등이 크지 않은 작품들을 살펴봄으로써 갈등이 거의 발생되지 않는 이유와 이러한 텍스트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는 민들레가 밀고 다니는 걸레를 발로 툅 막았다. 민들레가 앞으로 꼬꾸라졌다. (…)

민들레는 눈을 반달 모양을 하고 활짝 웃었다.

“나를 괴롭혀 줘서 고마워.” 하는 것만 같았다. (『알로 알로 내 짝궁 민들레』, 22면)

그런데 재덕이가 뒤따라 걸어오고 있었어요.

나는 못 볼 것이라도 본 양 고개를 획 돌리곤 빨리빨리 걸었습니다. 재덕이와 나란히 걷게 될까 봐 걱정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재덕이가 학교에 다니지 않는 건 정말 다행한 일이에요. (『내 친구 재덕이』, 10면)

“따라하지 마, 인마.”

하고 머리를 쿡 쥐어박으면 아무 말 못하고 눈에 눈물이 핑글 돌다가 씩 웃는 재덕이. (『내 친구 재덕이』, 31면)

『알로 알로 내 짝궁 민들레』와 『내 친구 재덕이』의 중심인물들은 모두 장애아동인물들과 함께 지내야 하는 상황에 있는 아이들이다. 『알로 알로 내 짝궁 민들레』의 바람이는 새 학년이 되어 첫 짝궁으로 “바보”를 만나게 된다. 『내 친구 재덕이』의 명구는 같은 동네에 사는 재덕이가 자꾸 학교 앞에 나타나자 기분이 없잖다. 바람이와 명구는 지적 장애가 있는 민들레

와 재덕이가 가까이 있게 되어 사람들의 이목을 끌자, 그 상황이 싫어 장애아동인물들에게 심술을 부리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하지만 민들레와 재덕이는 바람이와 명구의 폭력에도 여전히 웃는 얼굴을 보인다. 결국 바람이와 명구는 민들레와 재덕이 때문에 심술이 나기는 하지만 이는 일방적인 것일 뿐 장애아동인물들과 갈등관계로 진입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민들레와 재덕이가 바람이와 명구의 심술에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괴롭히는 친구일지언정 변함없이 그들을 위해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장애아동인물이 비장애인이나 성인들이 예상할 수 있는 대상으로 존재하고 있을 때, 특히 장애인물의 성격이 선한 것으로 평가될 때 갈등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 경우 장애아동은 일반 아이들보다 더 착하고 좋은 아이일 수 있다는 것을 비장애아동인물이 깨닫고 그들과 화해함으로써 자신의 편견을 수정하는 편만한 결말을 맺을 수 있다. 즉 장애아동의 주체적 욕망이 드러나지 않는 작품에서 갈등은 훨씬 수월하게 봉합되고, 작가들이 추구하는 ‘선’은 아동독자들에게 분명하게 전달된다. 이 경우 ‘비장애아동은 장애아동에 대한 편견을 없앴으로써 그들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누그러뜨려야 하고 그들의 장애를 긍정적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 ‘선’의 내용, 즉 윤리적 주제가 된다. 그리고 이는 장애아동은 선한 아이들이며 이 특성은 불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와 달리 장애아동인물들이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고 그것을 실현시키려 할 때 인물들 간의 갈등은 크게 나타난다.

“수학 싫어요. 책 볼래요.”

수아는 자기 맘대로 학급 문고에 있는 쪽으로 갔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웃지 않았어요. 영무도 가슴을 졸이며 선생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선생님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을 거예요. (…)

수아는 정말 맘대로병에 걸린 모양입니다. (『나와 조금 다를 뿐이야』, 17~18면)

“맘대로병”에 걸린 수아는 사촌인 영무의 반으로 전학을 온다. 선생님도 부모님도 수아의 부모(영무의 고모와 고모부)도 영무에게 수아를 잘 돌봐달라고 당부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수아는 “맘대로병”에 걸려서 선생님이나 같은 반 아이들에게 고분고분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이다. 영무는 이런 수아와 갈등관계로 진입하게 되어 어른들의 눈을 피해 수아를 괴롭히기도 하고 이용하기도 한다. 수아와의 직접관계 뿐 아니라 부모, 친구, 고모와 고모부, 선생님 등 수아를 둘러싼 거의 모든 인물들과 영무는 갈등관계에 들어선다.

인물들의 갈등은 그러나 비장애인물들이 수아의 장애를 이해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수아는 자신의 욕망을 거리낌 없이 드러내기 때문이다. 특히 수아는 판소리 공연을 좋아하고, 판소리를 배우고 싶어 하는데 이 일에 집착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을 살피지 못하고 소동을 만든다. 하지만 이 소동의 내용은 장애아동이 아니라도 벌일 수 있는 것이다. 즉 여기서 갈등은 수아가 장애아동인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인물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 행동했는가 아닌가의 문제로 촉발되는 것이다.

재현이는 엄마가 묻는 말에 예나 아니오만 대답하면 되었다. 그렇게 해도 불편한 건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이번 일은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은 예나 아니오 중에서 골라서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재현이는 다시 한 번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나서 말을 시작했다.

“어, 엄마. 나 하, 학교 가고 싶어. 저, 전동휠체어 타, 타고 다, 니……는 거 너, 너무 조, 좋아. 사, 사람……들이 쳐, 쳐다봐도 꽤, 괜찮아. 여, 열심히 여, 연습해서 나, 나중에, 호, 혼자 학교에도 다, 다니고 노, 놀러 다니고 그, 그럴 거야. (….) 그, 그러니까 나 하, 학교 보내 줘. 엄마 마음……대, 대로 하지 마, 말고.” (『벽이』, 125~126면)

『벽이』의 재현이는 말하는 것도 힘들고 혼자서는 학교에도 갈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이다. 엄마는 이런 재현이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면서 재현이가 원하는 것이라 여겨지는 모든 것을 재현이의 방에 구비해둔다. 재현이는 텔레비전, 오디오, 컴퓨터, 냉장고, 동화책 등 온갖 것이 들어찬 안방에서 엄마, 아빠 대신 지낸다. 하지만 재현이는 성인인물들에 의해 이해된 욕망 너머의 다른 것을 욕망한다. 그것은 혼자서 어딘가에 가고 싶다는 것인데, 이 욕망을 실현하려하자 인물들은 갈등관계로 진입한다. 재현이의 욕망을 긍정하는 선생님과 이를 부정하는 엄마 사이의 갈등은 곧 재현이와 엄마의 갈등이 된다.

『나와 조금 다를 뿐이야』의 수아나 『벽이』의 재현이는 성인인물이 가져도 좋다고 인정한 욕망 이외의 것, 그리고 성인인물이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을 욕망함으로써 갈등을 불러온다. 여기서 장애인물들의 욕망은 성인인물에 의해 허락되지 않은 것이며, 장애아동인물의 ‘선택’을 증명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즉 이 작품들에서 장애아동인물의 욕망은 비장애인물들의 욕망과 상충하고 욕망을 실현하려는 장애인물들은 비장애인물들에게 불편을 끼친다. 이 상황에서 장애아동인물들은 비장애인물들과 같은 욕망을 가지고 있고, 이를 실현하고자 하기에 편견 없이 장애를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장애아동인물이 본질적으로 더 착한 아이들이라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는다. 이 경우 갈등은 쉽게 봉합되지 않고, 장애아

동인물을 비롯한 여러 인물들 사이의 소통이 갈등해결의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따라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인 ‘소통’의 과정 자체가 윤리의 덕목이 된다.

이처럼 장애아동인물을 둘러싼 갈등은 장애아동인물이 가진 욕망과 관련하여 그 크기가 달라진다. 그러나 이 두 경우와 다르게 장애인물이 욕망을 가지고 표현함에도 별다른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 작품들이 있다.

그 전까지 민우는 공부를 잘 했지만 회장은 꿈도 꺾이지 못했습니다. 회장 선거에 아예 아이들이 추천해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선생님도 민우가 회장이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 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맺혔던 한이 목을 메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여, 여러분이 저를 회장으로 뽑아 주신다면 우리 반을 정말 재미있는 반으로 만들겠습니다. 비록 제가 장애가 있지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민우야 난 할 수 있어!』, 14~15면)

혼자서는 걸을 수 없어 목발에 의지하지만, 민우는 “회장을 한 번 해보고 싶”(7면)어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도 장애인인 민우를 추천해주지 않았는데, 드디어 기회가 온다. 민우는 그동안 자기의 욕망을 실현할 수 없었던 것을 생각하고 “맺혔던 한” 때문에 울컥 목이 멘다. 민우는 회장이 되고 싶은 마음을 친구들 앞에서 드러내고 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가 결국엔 회장이 된다.

드디어 퇴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회아네 담임선생님과 교장 선생님까지 모두 다 병원으로 와 회아를 환영해 주기로 했습니다. (…)

“희아 네가 피아노 페달을 못 밟는다고 해서 아저씨가 일본에 특별히 주문해 제작해 온 거란다. 이걸 이용하면 이제 페달을 밟을 수 있단다.”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68~69면)

희아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불편한데다 손가락이 4개뿐이지만 피아니스트가 되고자 한다. 의도치 않게 희아를 다치게 한 재호는 자신 때문에 입원한 희아를 보고 그동안 희아의 장애를 놀린 것을 뉘우치고, 이 일을 계기로 재호 아빠는 희아가 피아니스트가 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돕기 시작한다. 재호의 아빠는 피아니스트가 되는 데에 꼭 필요한 페달 장치를 희아에게 선물할 뿐 아니라 희아가 캐나다에 유학 갈 수 있도록 돕기도 한다. 게다가 희아의 학교 선생님들, 친구들을 비롯하여 교장 선생님까지도 희아가 꿈을 이루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처럼 민우와 희아는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고 당당히 반장의 역할과 피아니스트의 역할을 해낼 수 있게 된다. 『민우야 넌 할 수 있어!』의 민우가 반장이 되어 반을 이끌고 싶다는 것을 욕망할 때, 그리고 반장이 되어 자기 반을 1등이 되도록 만드는 것을 욕망할 때도 민우의 부모와 고모, 친구의 형, 선생님 등, 성인인물들은 민우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물심양면으로 돕는다. 또한 반 아이들도 별다른 갈등 없이 민우의 지시를 따라 협력하고, 모든 공은 민우에게 돌린다.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의 희아도 마찬가지이다. 이 작품에서는 희아의 욕망이 오히려 어른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발현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희아는 피아니스트가 되는 일에 내적 갈등을 겪기도 하고 자신의 욕망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재호 아빠를 비롯한 어른들이 희아가 피아니스트가 되는 일에 자발적으로 나서서 희아의 욕망을 실현시키고자 한다.

이렇게 『민우야 넌 할 수 있어!』와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의 장애아

동인물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드러내고 실현시키고 있음에도 주변의 인물들과 갈등 관계로 들어서지 않는다. 여기서 장애아동인물의 욕망이든 주변의 성인인물들에 의해 용인된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우가 반장이 되는 것, 그리고 민우의 지시에 따라 운동회 연습을 하고 마침내 이기는 것은 작품 속 성인인물들이 옳다고 말하는 것에서 조금도 벗어나 있지 않다. 또한 희아가 꾸준한 연습 끝에 훌륭한 피아노 연주를 하게 되는 것도 또한 성인인물들이 ‘선’으로 생각하는 것에 부합하는 일이다.

“선생님, 저 민우 아빤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민우에게 기회를 주셔서. 우리 민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겁니다. 만일 능력이 모자라서 못 할 것 같으면 민우 스스로 회장 자리를 내놓을 겁니다.(…)”(…)

“맞아, 우리 민우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국회의원이 될지도 몰라.”(…)

민우도 어깨는 무거웠지만 보란 듯이 회장 일을 잘 해내고 말겠다는 결심을 굳게 했습니다. (『민우야 넌 할 수 있어!』, 60~61면)

“그러니까 희아야, 더 이상 이렇게 방에 틀어박혀 있지 말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최선을 다해 피아노도 치고 공부도 하도록 해. 그게 바로 멋진 사람의 행동이야. (…)”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99면)

“아저씨, 저 이제부터 열심히 피아노 치겠어요. 그리고 학교에도 다시 다닐 거예요.”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125면)

두 작품에서 성인인물은 장애아동인물에게 “최선을 다 해” 열심히 하는 것이 ‘선’임을 강조하고, 장애아동인물은 그에 화답하며 ‘선’으로 규정된

것을 자신의 욕망과 일치시킨다. 이렇게 볼 때 장애아동인물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는 성인인물들이 장애아동인물들에게 바라는 것에 순응하는 방식이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장애아동인물들이나 비장애아동인물들도 성인인물이 용납하지 않는 욕망을 드러내지 않는다.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에서 희아는 잠시 피아노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린다. 하지만 이 사건은 성인인물의 아동인물에 대해서 많은 계몽의 기회로 작용한다. 그리고 성인인물에 의해 규정된 “최선을 다해 피아노도 치고 공부도 하도록” 하는 것이 윤리라는 사실은 오래지 않아 장애아동인물에게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이러한 작품들에서 장애아동인물이 최선을 다해 성인인물들이 지시하는 것을 수행하고 비장애아동인물이 장애아동인물의 조력자가 되는 것은 ‘선’의 내용이 되며, 성인인물들이 윤리로 설정한 것을 지키는 일은 윤리의 실천방식이 된다.

지금까지 장애아동인물의 욕망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갈등의 양상을 살펴해보았다. 갈등은 때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이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삶의 모습을 인지하고 타자에 대한 이해도 가능해지므로, 갈등 해결과정은 주체와 타자가 서로를 드러내고 서로를 이해해가는 데에 꼭 필요한 과정이 된다. 다음 장에서는 장애 관련 아동서사문학의 작가들이 갈등을 이해하는 방식과 이를 해결해나가는 방식을 살펴 그 윤리성과 전복적 상상력을 고찰하고자 한다.

3. 작가의 타자윤리적 감수성과 상상력

장애 관련 아동서사문학에서 인물 간의 갈등은 장애아동인물의 주체적 욕망과 관련이 깊음을 앞 장에서 논하였다. 장애아동인물들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존재하며, 그 모습이 사회적으로 ‘선’이라 규정되는 도덕적인 것에 가까운 경우 갈등은 비장애인물들 간에 발생하거나 비장애인물의 내적인 것에 그친다. 그리고 갈등의 크기도 그다지 크지 않은데, 이는 비장애아동인물의 장애에 대한 인식에 그 원인이 있기에 비장애아동인물의 인식 전환에 의해 갈등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작품에서 장애아동인물의 개성은 이미 ‘선’으로 편견 났기에 비장애아동인물들은 장애인물들의 ‘선’을 인지하고 편견을 거두기만 하면 된다.

『알로 알로 내 짝궁 민들레』의 민들레는 지적 장애가 있는 인물이지만 민들레는 자기를 괴롭히는 바람이에게 변함없이 상냥하고, 바람이를 위해 ‘무서운 형들’과 맞서기까지 한다. 민들레는 작품의 처음부터 끝까지 선한 성격을 드러내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존재한다. 이에 이 작품의 갈등은 바람이의 내적 갈등이자 심술꾸러기 바람이와 민들레를 돕는 착한 아이들 사이의 갈등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 결론은 바람이가 편견을 바꾸어 민들레의 선함을 알아보고 내적 갈등을 끝낸 후 착한 아이가 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갈등의 양상은 『내 친구 재덕이』에서도 흡사하게 나타난다. 재덕이 또한 비장애인물들이 예상 가능한 존재로 남아 있으며 그 성격도 사회적 선을 드러낸다. 따라서 이 작품에 나타나는 갈등 또한 명구의 편견이 거뒤틀려짐으로써 종결된다.¹¹

이러한 작품들은 장애아동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제거하는 일에 도움을 주는 면이 있으며, 이는 아동독자들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는 데에 교육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타자윤리적 관점에서 이해할 때, 이는 장애아동에게 부정적 편견 대신 ‘선의 내용을 가진 편견’을 심는 방

11 명구의 어머니는 명구가 재덕이 같은 “바보”와 어울린다는 사실을 못마땅해 하지만, 명구의 할머니는 그런 어머니를 타이르는데, 이를 통해 작가는 선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독자들에게 설명할 기회를 만든다.

법이 될 가능성을 내재한다. 여기서 문제는 작가가 장애아동을 윤리적으로 그려내는가에 있기 보다는 작가의 시선을 전달하는 방식이 윤리적인가 하는 데에 있다. 성인작가가 아동독자에게 장애아동은 변함없이 선하다고 가르치고 아동독자에게 그들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바꿀 것을 요구할 때, 오히려 장애아동의 “물질성”¹²은 드러날 수 없다. “물질성”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게 되는 인간 근본의 욕망이기에 당연히 장애인에게도 존재한다. 따라서 장애인을 이해한다는 것은 주체적 욕구를 가진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이해를 그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장애아동의 주체적 욕망이 드러나지 않는 작품들에서, 장애아동인물의 고유한 물질성 즉 개성은 장애라는 특성에만 국한된다. 아동의 장애가 발생시키는 어떠한 특성을 제외하고, 개인으로서의 그리고 주체로서의 욕망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특정한 장애가 발생시키는 특성은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고 예상이 가능한 것이기에 비장애인들이 구획한 경계 안에서 이들은 벗어나지 않으며 그들의 개성적인 물질성도 특별히 드러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장애아동인물은 작가의 장애아동상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이념적 존재가 된다.

장애인을 부정적으로 인식 하는가 아닌가는 그가 주체로서 존재함을 인식하는 것에 선행하지 않는다. 또한 장애아동을 변화하지 않기에 언제나 예상 가능한 존재로 그릴 때, 성인작가는 계몽의 주체가 되고 독자는 계몽

12 엠마누엘 레비나스, 강영안 역, 『시간과 타자』, 문예출판사, 2001, 57~62면.

레비나스는 존재자의 물질성 자체를 긍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것이 존재의 존재함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는 “경제적 투쟁은 이미 그 자체로 구원을 위한 투쟁이다.”라고 말하며, “일상적 삶은 구원에 몰두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렇게 물질성은 신체를 지닌 인간이 경제적이고 환경적인 여건들을 필요로 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아동과 장애아동의 물질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성인주체에 의해 타자인 이들도 신체를 지닌 인간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정신은 신체와 분리가 불가능한 것이므로 타자의 물질성을 인정할 때 신체적, 정신적 욕망을 지닌 하나의 인간으로 아동과 장애아동이라는 타자를 사유할 수 있는 것이다.

의 대상이 된다. 왜냐하면 분명하게 도출된 ‘선’과 언제나 동일한 장애아동에 대해, 아동독자들은 성인작가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 이외에 다른 윤리적 방법을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인작가는 아동독자들에게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을 요구하는 계몽의 주체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시선에 대해 아동독자는 계몽의 대상이 되고, 장애아동 또한 아동독자를 계몽하기 위한 도구적 개념에 머물게 된다. 이처럼 작가가 아동독자에 대해 계몽의 주체의 자리에 서서 그가 파악한 대로 장애인의 성격을 고정시키고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주체적 인간으로서의 장애인 이해’라는 측면에서 과연 윤리적이냐하는 의문을 낳는다. 이러한 경우 장애인이라는 “지식의 대상은 주체에 의해 흡수되고 이원성은 사라”지기에 장애아동과 아동독자라는 두 타자는 “타자의 소멸”¹³에 이르게 되고 주체에 의해 이해된 장애인 표상과 선한 아동의 표상만이 남는다. 따라서 장애아동인물은 선이라는 내용을 입게 되지만, 선이 주입되는 과정이 윤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장애아동인물의 욕망은 드러나지만 장애아동과 비장애인물 간의 갈등이 드러나지 않는 텍스트에서도 같은 방식의 ‘선’의 형식이 발견된다. 『민우야 넌 할 수 있어』와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의 장애아동인물들이 주변의 인물들과 갈등 관계로 진입하지 않는 것은 장애아동인물들과 주변의 비장애인물들—성인과 아동인물—이 모두 작가의 윤리에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작품들에는 장애아동인물의 욕망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앞에서 살펴본 텍스트와 차이를 보이지만, 작가의 윤리가 전달되는 방식이 일방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흡사하다.

『알로 알로 내 짝궁 민들레』와 『내 친구 재덕이』가 아동인물의 내적 갈등

13 위의 책, 23면.

등과 주변 인물들과 소소한 갈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장애아동 인물의 욕망이 드러남에도 『민우야 넌 할 수 있어』와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의 인물들에게서는 이러한 갈등 양상도 찾아볼 수 없다. 동시에 윤리의 내용은 『알로 알로 내 짝궁 민들레』와 『내 친구 재덕이』보다 더욱 강한 어조로 드러난다. 『민우야 넌 할 수 있어』에서 작가의 목소리는 성인인물의 음성을 통해 명시적으로 나타난다. 이로써 작가가 전달하는 분명한 윤리의 내용은 아동독자가 회의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순응해야 할 것이 된다. 이러한 어조는 작품의 계몽성을 더욱 강하게 하기에 작가와 아동독자의 관계는 계몽의 주체와 계몽의 대상에 더욱 가까워진다. 따라서 이러한 텍스트 속 아동인물은 작가의 이념을 전달하는 매개체로 기능하기에 작품 전체를 통하여 작가의 목소리만이 남는다. 또한 아동독자는 강한 주체의 목소리를 수용해야 할 대상으로 호명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작품에서 타자윤리적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면 장애아동의 욕망을 표현함으로써 장애아동의 물질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작품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윤리를 드러내는가.

‘좋기도 하겠다. 치, 나중에 선물 안 나눠 주기만 해 봐. 다시는 집에서 생일잔치 못 하게 할 거야.’

사실 다현이가 그동안 여러 번 생일잔치를 하겠다고 졸랐지만 그때마다 재현이가 못하게 했다. 재현이는 자기 생일잔치도 따로 해 주어야 한다고 우겼다. (『벽이』, 29면)

『벽이』에는 장애아동의 욕망이 잘 드러난다. 재현이는 자기는 할 수 없는데, 동생 다현이만 집에서 생일잔치 하는 것이 못 마땅해 휘방 놓기도 하고, 자기도 똑같이 해달라고 조르기도 한다. 평범한 아동인물의 욕망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작품에서 작가들은 아동독자들에 대해 선량하고 순수한 장애아동상, 혹은 최선을 다해 장애를 극복해내는 인간승리의 장애아동상을 만드는 대신 장애를 한 인간의 특성으로 파악하고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욕망하는 주체로 그려낸다. 장애인물은 성인인물들이 만들어 놓은 경계를 넘나들며 그들의 물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작품들에서 장애인물은 특정한 장애인상을 보여주지 않는다. 이들은 다만 장애라는 특성을 가진 개인일 뿐이며, ‘지금 여기’의 일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독립된 주체이기 때문이다.¹⁴

따라서 이러한 작품들에서 윤리는 비장애아동인물에 대한 편견이 깨짐으로써 획득되지 않는다. 아동인물들과 장애아동인물, 그리고 성인인물들이 서로의 생각과 상처를 드러내고 공유하며 소통함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얻어진다. 모두가 조금씩 이해함으로써 공동체의 합의를 이루어 가는 과정 자체가 윤리인 것이다. 이러한 작품에서 작가는 장애아동인물과 아동인물의 욕망을 모두 부정하지 않으며, 이들의 갈등을 인간사회의 문제로 바라본다. 그리고 이를 통해 소통하는 것, 그리고 소통의 가능성을 윤리로 설정한다.¹⁵

이러한 관계는 타자윤리를 기반으로 한다.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고, 장애인을 비장애인, 특히 성인의 “앓”의 영역에 두지 않음으로써 비장애인

14 엠마누엘 레비나스는 존재가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라는 장소와 ‘지금’이라는 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강영안, 앞의 책, 85~122면 참조) “주체의 출현을 통해서 ‘순간으로서의 현재’가 가능하다”(위의 책, 99면)는 것이다. 장애아동이 성인작가의 특정한 표상으로 존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현재, 여기를 살아가는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장애아동의 물질성에 바탕을 둔 그들의 일상을 긍정할 수 있어야 한다. 순수한 표상에서 벗어나 욕망하고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지금·여기를 살아가는 장애아동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

15 이러한 작품에서 장애인물과 비장애인물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볼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비장애인물이 장애인물에 대한 “앓”을 요구받지 않고, 장애인물 또한 비장애인물의 “앓”으로 완전히 이해되지 않기에, 비장애인물과 장애인물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봄으로써 서로의 물질성을 인정하고 서로를 주체로 인지한다.

은 장애인에 대해 자발적으로 책임의식을 갖게 된다. 이는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책임, 그리고 타자의 얼굴 앞에서 실행되는 자유에 대한 자발적 제한이 만들어내는 윤리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공동체의 관점에서 보면 의사소통을 통해 자유와 책임에 대해 합의해나가는 과정이 발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¹⁶

사진첩 중간에 마루에 걸린 가족사진이 끼워져 있었다. 그 다음 장부터는 아무 것도 없었다. 가끔 다현이가 사진을 찍어 와도 다현이 사진은 따로 정리했기 때문에 이 사진첩만 보면 다현이네 집은 다섯 살 되던 해 삼일절부터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

다현이 입에서 생각지도 않던 말이 술술 나왔다. 아니, 벌써 오래 전부터 가슴 속에 담아 두었던 말이었다.

“그 사진만 보고 있으면 오빠가 다시 예전처럼 된대? 엄마는 왜 항상 옛날 사진만 보고 있어? 이제 옛날 생각 그만 좀 해.”(…)

“나도 알아!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들어서 다 안다고. 예전에는 오빠도 나처럼 걷고, 말도 잘하고, 나보다 훨씬 더 똑똑했다고……. 그 말 하려는 거지? 그럼 뭐 해? 지금은 아니잖아.”(…)

“이게 뭐야? 사진 한 장 없이. 지금 이 집에 살고 있는 오빠하고 나는 뭐 귀신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너희들한테 얼마나 잘하려고 하는데…….”

“잘해 주면 뭐 해? 마음속으로는 항상 어렸을 때 우리들만 기억하고 있잖아. 그

16 가라타니 고진, 송태욱 역, 『윤리 21』, 사회평론, 2012, 9면.

저자는 도덕과 윤리를 구별하고 있다. 그는 도덕은 “공동체적 규범”으로 보고, 윤리는 “‘자유’라는 의무와 관련된 의미”이며 실천적인 것이라고 이해한다. 타자의 얼굴에 대해 자발적으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책임을 지는 실천적인 행위가 윤리이며, 이는 현재 우리 사회에 요구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리고 틈만 나면 ‘우리 재현이도 옛날에는…….’ 그 소리지.(…)” (『벽이』, 91~95면)

인용한 부분은 다현이와 엄마가 재현이의 장애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잘 드러낸다. 다현이가 재현이의 장애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타자로서의 재현이를 받아들이고 있는 데에 비해, 부모의 지식 속에서 재현이는 ‘언젠가 장애에서 벗어나 정상이 되어야 할, 비정상인 상태의 아이’로 설정되어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과거에서 현재까지 부모는 재현이를 ‘정상이었던 아이, 그때로 돌아가야 하는 아이’로 사유했기에 “다섯 살 되던 해 삼 일절부터 시간이 멈춘”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그들의 생각 속에서 현재의 재현이와 재현이의 욕망은 지속적으로 부정된다. 건강했던 과거가 증명하듯이 재현이의 현재 상태는 일탈적인 것이기에, 재현이의 미래는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 혹은 지금까지 부모가 돌봐온 대로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 이외의 어떤 가능성에도 열려 있지 않다. 즉 이 상태에서 이 가족이 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예상, 미래의 기획은 기껏해야 현재의 미래일 뿐, 진정한 미래가 아니다.”¹⁷ 성인인물의 지식 속에서 이해되는 재현이는 아프기 전의 과거를 지속적으로 환기시킬 뿐이다. 장애인이 되기 전 재현이의 사진을 유일한 가족사진으로 여기는 것처럼. 그러나 재현이의 욕망을 바라보고 재현이의 물질성을 알게 됨으로써 부모는 비로소 현재의 재현이와 의사소통을 시작할 수 있게 되고 재현이가 그들의 지식으로 환원시킬 수 없는 타자임을 깨닫게 된다.¹⁸

17 강영안, 앞의 책, 110면.

18 엠마누엘 레비나스, 양명수 역, 『윤리와 무한』, 다산글방, 2000, 75면.

재현이의 부모는 재현이가 욕망한다고 예상되는 거의 모든 것을 재현이의 방안에 구비해둔다. 하지만 부모의 재현이에 대한 “앓이란 항상 생각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사이를 갖다 맞추는 것”에 불과하기에 그들의 “앓 속에는 자기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없다”(75면) 재현이의 자기 욕망 표현은 부모에게 재현이라는 타자를 드러나게 하고, 이후 부모는 재현이를 이해의 대상에서 욕망하는 주체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이처럼 한 사회의 주체가 그들의 인식 안에서 장애인을 대상화하여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서 벗어나, 그들을 욕망하는 주체로 바라볼 때 비로소 주체에 의해 완전히 동화되거나 파악될 수 없는 ‘타자’와의 만남이 가능해진다.¹⁹ 그리고 “타자성을 보존”²⁰하는 주체와 타자의 만남은 현재의 반복이 아닌 새로운 미래를 가능하게 한다. ‘장애인은 선택기에 장애에 대한 아동독자의 인식개선이 가장 중요하다는 교훈의 전달’과 ‘성인이 주축이 되는 공동체가 허용하는 것만을 장애인에게 욕망하도록 하는 것’은 모두 현재의 연장일 뿐이다. 이러한 윤리는 그 일방성에 의해 아동과 장애아동의 타자성을 배제하기 때문이다. 장애인은 욕망을 가진 주체로 비장애인과 사립의 관계를 맺는, 주체의 지식으로 완전히 해석될 수 없는 타자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공동체에는 새로운 소통의 가능성으로서 미래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물의 욕망을 드러내는 텍스트는 일방적 교훈성을 탈피하여 지금 여기에 새로운 미래를 여는 전복의 가능성으로 작용한다.

19 아빠가 벽에 걸린 가족사진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그래, 저기 저 사진에 있는 재현이도 우리 아들이고,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재현이도 우리 아들이야.”

다현이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아니예요, 아빠. 저건 그냥 사진이고, 여기 있는 게 아이고 영감, 우리 오빠예요.”

“다, 다현이……너…….”

재현이가 다현이에게 주먹을 흔들며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다른 때와 달리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벽이』, 100~101면.)

20 엠마누엘 레비나스, 『윤리와 무한』, 99면.

저자는 “사람끼리 서로 마주하는 가운데 있으며 사립 가운데” 있는 것을 “윤리”라고 본다. 즉 주체에 의해 일방향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타자성을 마주볼 수 있을 때 사립이 발생하며, 사립은 곧 “윤리”가 되는 것이다. 사립의 윤리는 따라서 타자의 타자성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들의 욕망을 인정하는 것으로 소통의 과정을 불러온다.

4. 결론

아동서사문학의 생산주체인 성인작가가 아동독자를 주체의 지식으로 완전히 환원시킬 수 없는 타자로 사유할 때 아동서사문학은 문학의 윤리를 배태하게 된다. 이에 아동서사문학 생산주체의 타자윤리는 무척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아동서사문학의 작가와 아동독자의 관계 윤리를 중심으로 장애 관련 아동서사문학에 나타나는 주체(성인작가)의 타자(아동과 장애아동)에 대한 타자윤리를 고찰하였다. 장애 관련 아동서사문학은 작가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주체들이 아동과 장애인에 대해 갖는 윤리의 형식을 잘 보여주는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장애관련 아동서사문학 텍스트에 장애인물의 욕망이 나타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살펴보았는데, 이는 장애를 인식하는 작가의 시선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장애아동인물의 욕망이나 성격에서 변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없고, 장애아동인물의 특성이 주체에 의해 파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는 작품들에서 장애아동인물은 물질성을 드러내는 타자로 존재하지 않는다. 변화하지 않는 인물로 장애인물을 그리는 작가의 시선에서 불변하는 선으로 구성된 장애아동인물은 관계의 갈등을 만들어내지 않으며, 텍스트는 편안한 결말을 맺을 수 있다. 이러한 갈등 없는 결말은 성인작가가 허용하는 것만 욕망하는 장애아동인물이 등장하는 텍스트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반면, 장애아동인물의 욕망이 적극적으로 드러나는 텍스트에서는 장애아동인물을 둘러싼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자주 발생한다. 이는 장애아동을 성인의 이념으로 완전히 파악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들의 타자성과 욕망을 인정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텍스트에서 갈등은 더 자주 발생하고 그 해결과정도 단순하지 않기에 결말은 쉽게 주어지지 않

는다. 그러나 주체의 이념이 타자를 포섭하지 않기에 이 텍스트에서는 사권의 관계가 나타난다. 이렇게 주체가 타자의 물질성을 마주하고 소통의 과정에 들어설 때 비로소 미래도 가능해진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의 지식으로 판단되는 대상이 아니며, 스스로 자신의 욕망을 표현하고 실현해가는 존재이다. 이러한 인식은 장애아동이 주체에 의해 완전히 파악되지 않는 타자이자 동시에 자신의 욕망을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 주체임을 인정하는 작가들과 장애아동의 목소리가 드러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려는 작가들에 의해 아동서사문학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성인주체의 목소리가 아동이나 장애인과 같은 타자들의 물질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그들을 통과할 때 그곳은 주체의 혼잣말만이 존재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 타자를 마주하지 못하는 공간에서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타자의 얼굴을 마주하고 그들의 타자성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미래는 도래할 수 있다. 비록 타자들을 인지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더 많은 공정을 거쳐야 하는 일이자, 의사소통 과정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 일이 사회를 시끄럽게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또한 성인주체에게 더 많은 이해를 요구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미래와 변화를 현재의 시공간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 그것이 문학의 윤리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고정옥,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대교출판, 2003.

고정옥, 『민우야 넌 할 수 있어!』, 아이앤북, 2005.

공지희, 『알로 알로 내 짝궁 민들레』, 비룡소, 2005.

공진하, 『벽이』, 낮은산, 2005.

이금이, 『나와 조금 다를 뿐이야』, 푸른책들, 2000.

이금이, 『내 친구 재덕이』, 푸른책들, 2002.

2. 논문

김성희, 「장애관련 아동문학작품의 등장인물 특성분석을 통한 작가의 장애에 관한 견해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논문, 2011.

김진주, 「장애이해교육에 활용된 동화에 나타난 장애인관 분석」, 경인교육대학교 석사논문, 2013.

박남수·권정순, 「우리나라 창작동화에 나타난 장애 관련 내용 분석」, 『초등특수교육연구』 7권1호, 초등특수교육학회, 2005.

3. 단행본

강영안, 『레비나스의 얼굴-레비나스의 철학』, 문학과 지성사, 2005.

이승기·윤상용·서동명, 『장애인복지론』, 신정, 2016.

가라타니 고진, 송태욱 역, 『윤리 21』, 사회평론, 2001.

엠마누엘 레비나스, 강영안 역, 『시간과 타자』, 문예출판사, 2001.

_____, 양명수 역, 『윤리와 무한』, 다산글방, 2000.

Abstract

The Ethicality and Revolutionary Imagination of
Children's Literature Related with Disability

Park Seonga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exts and to explore the Ethicality and Revolutionary Imagination of Children's Literature Related with Disability in the 2000s. In order to do this, I study the materiality of the Others and the conflicts between the characters in the texts.

The conflict between the characters occurs when the disabled character starts to express his or her materiality through his(her) own desire. In the texts that the conflict between characters is not serious, the disabled character tends to be predictable by the non-disabled or the adult characters. When the personality of the disabled character is evaluated as good, conflicts do not occur especially. In the texts that the disabled character's desire is not revealed, the conflict is resolved more easily and writers can pursue their ethic clearly to children readers. In theses texts, it is a subject of the texts that Non-disabled children should relieve their negative feelings toward disabled children by eliminating prejudice against them and be aware of their disability positively. This assumes that the disabled are good children and this is invariable. In 『Minwoo, you can do it』 and 『The pianist with four

figures』, disabled characters do not make conflicts with non-disabled and adult characters, even though they reveal their desires. The desire of Disabled characters is revealed without conflict and supported by the adult characters because that desire is allowed by the adult characters.

On the other hand, Sua and Jae-hyun of 『It's a little different from me』 and 『Byuki』 make conflicts by desiring what is not allowed by the adult characters and doing that the adult characters can not accept. In this texts, the conflict is not resolved easily and communication is the essential ingredients for solution of conflict. So, the communication process is a ethic.

Ethics is based on understanding of the human being, so we should understand disable person is a being that has their own desire and materiality. Positive perceptions about disabled persons is not important than we recognize that disabled persons is the Subject that have their desire and materiality. Ethic is perceiving the conflict as a matter of the Subject and the Subject of human society and opening the communication possibility. So, the texts that is revealed the disabled person's desire and materiality mean a lot to Korean children's literature because that express ethic of communication and the communication possibility.

■ Keywords: Children's Literature, Disability, Ethicality, the Ethic of the Other, Materiality, Conflict, Revolutionary Imagination

■ 논문접수일: 2018. 05. 15. / 심사기간: 2018. 05.28~06.08. / 게재확정일: 2018. 06.10.